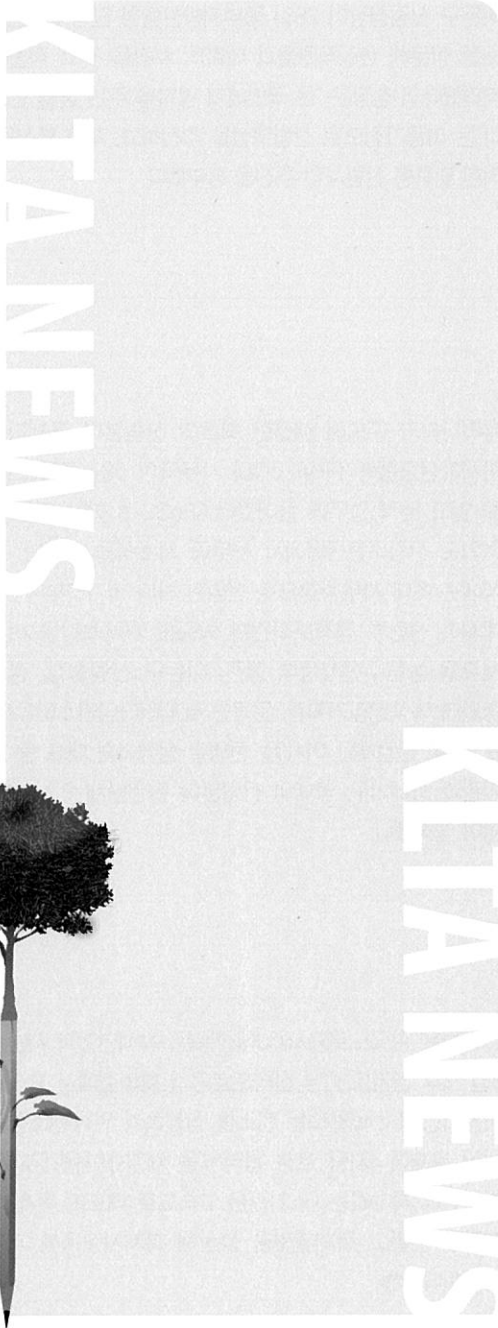




KLTA NEWS + 2013 Spring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1. 21(월)에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과 관리소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방청 운영과장과 산림경영과장의 예산조기집행부터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총 66개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과 청장님 주재하에 관리소별 애로 및 건의 사항, 주요쟁점에 대해 토의하였다. 동부청 관계자는 지방청과 관리소 직원이 한해 집행할 주요 업무에 대해 같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하늘에서 찾아낸다

24일부터 2주간 전국 200만ha 산림에서 헬기로 재선충병 예찰조사



전국의 소나무숲을 대상으로 하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를 찾아내는 작업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4일부터 2주 동안 헬리콥터 연 87대를 동원해 재선충병 항공정밀 예찰조사를 벌인다. 전국 11개 시·도, 108개 시·군·구의 200만ha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사는 산림청 헬기와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가 투입돼 지상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헬기에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연인원 300여명이 도면과 GPS(위성항법장치)를 휴대하고 탑승해 소나무 고사목 존재 유무를 살필 계획이다. 항공예찰조사로 파악된 소나무 고사목은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250개단, 1000명)이 지상에서 다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시료(목편)를 채취하고 이를 산림연구기관에 보내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판단한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의 결과를 올 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그동안의 방제노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방심할 수 없다"며 "상반기 재선충병 방제전략을 꼼꼼하게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민병준 주무관
(042-481-4069).

"산림경영 패러다임 바꿀 기회"

25일 오전 덕유산서 국유림 시범경영계획구 1년차 운영성과 보고회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5일 오전 전북 무주 덕유산에서 국유림 시범경영계획구 운영성과보고회를 개

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균 산림청 차장과 5개 지방산림청장 등 산림청 9관계자들과 각 시범계획구의 경영전문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유림시범경영계획구는 산림청이 지난해 7월부터 저비용 고효율의 산림경영·관리 모델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지방산림청별로 관할 국유림 중 6곳에 5000~6000ha 규모로 지정하고 이를 산림청 공무원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가에게 책임경영을 맡긴 곳이다. 현재 강원도 홍천 가리산, 평창 봉평, 경북 영주 장군봉, 충북 보은 샘봉산, 전북 무주 민주지산 등에 지정돼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계획구에 배치된 경영전문관들이 그동안 실시한 관할구역 산림조사, 주변 환경분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경영구상 및 계획, 향후 발전방안 등을 서로 토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남균 산림청 차장은 "그동안의 산림정책이 심고 가꾸는 정책이었던 데 반해 지금은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효율적 산림경영·관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시범경영계획구 및 경영전문관 책임경영제도 도입은 우리 산림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권장현 사무관
(042-481-4181)



작년 임산물 수출 3억1000불, 전년보다 대폭 늘어

섬유판, 생밤, 생표고 등 수출효과 품목 선전...2011년
보다 26%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산물 수출액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3억1000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수출목
표였던 2억8000만 달러를 11%나 초과한 수치로 세계
경기 침체와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을 뚫고 이룬 성과
여서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산물 수출확대
는 생밤, 생표고, 분재, 섬유판 등의 수출규모가 늘어
났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생밤은 생육기 고온과 가
뭄, 수확기 태풍 등으로 인한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7% 증가한 2800만 달러가 수출됐다.
밤 수출 증가는 수출인센티브 추가지원, 미국·유럽의
주류 시장을 공략한 홍보판촉행사 지원 등 산림청(청
장 이돈구)의 다각적인 수출확대 정책이 주효한 것으
로 풀이된다. 또 건조감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한 미국 진출로 전년보다 357%가 늘어난 102만 달
러, 유럽에 시장조사단을 파견해 신규 거래선을 발굴
한 신선표고는 전년대비 16%는 18만 달러, 해외마켓
테스트 사업을 통해 미국수출이 늘어난 분재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57만 달러가 각각 수출됐다. 목재류
중 섬유판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의 수요증가
와 국내기업의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71% 증가한 3924만 달러가 수출됐
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에도 기존 수출선도 조직을 통해 안정적 물량을 확보
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
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또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판
촉전·박람회 등 공동마케팅사업으로 한국임산물 인
지도를 높이는 수출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임산물의 생산부터 출하
까지 수출관리를 일원화할 수출특화단지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임산물 포장
기술 개발 등의 R&D사업, 국산 임산물 브랜드 홍보
등 임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에 우리 임산물을
알리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최준석 산림청 해외자
원협력관은 "올해 임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특화단지
조성, 해외시장개척 지원 및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에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2013년 임산물 수출목
표인 3억3000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김대환 주무관(042-481-4087)

해외조림현장에서 찾는 청년의 미래

산림전공 청년 23명 인턴으로 5개국 11기업 해외산림
자원개발 현장 파견



23명의 산림분야 청년 대학생들이 미래 국제 산림 전문가의 꿈을 안고 이달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 현장으로 인턴활동을 떠난다. 해외산림사업 현장으로 직장체험에 나서는 인턴은 산림관련 학과 대학생 및 졸업후 미취업자들이다. 이들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청장 이돈구)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제도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지난 2009년 시작된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제도는 산림청의 녹색일자리 창출정책의 하나다. 국제산림전문가를 꿈꾸는 미취업 산림 전공자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실행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해외 산림자원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턴들은 지난달 31일 산림청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국내외 해외진출 조림기업 등에서 한 달간 사전훈련을 받고 11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파라과이 등 5개 국가로 나간다. 인턴들은 현지에서 해외조림 및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11개 한국기업의 인턴사원 신분으로 산림조사, 산림사업 관리, 임산물 가공현장 지원업무 등의 해외산림개발 현장업무를 익힐 계획이다. 인턴들을 받아들일 기업 및 기관은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코린도, HC네트웍스, 산림조합중앙회, 세양코스모, 무림페이퍼, 마루산업, 우림NR, 녹색사업단,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등이다. 인턴 운영경비는 산림청이 80%, 해당기업이 20%를 각각 지원한다. 인턴들에게는 월 120만 원의 급여(현지 체재비 별도)가 지급된다. 인턴활동 종료 후에는 해외투자 기업에 직원으로 채용될 기회가 주어진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해외인턴 참여자 78명 중 40%가 인턴참여 기업 또는 동종업체에 취업한 바 있다. 최준석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은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목재신재생에너지

원료확보를 위해서 해외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커져 국제 산림전문가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제도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산림인재를 양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차준희 사무관(042-481-8863)

한국주도 첫 산림국제기구 사무국, 서울에 개소 5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개소식...지역산림 복원 등 국제협력 업무 시작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산림분야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이 5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AFoCO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이 기구 사무국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하디 파사리부 전 인도네시아 산림부 정책보좌관 및 박종호 사무차장을 비롯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돈구 산림청장,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전영우 생명의숲 대표 등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국내외 산림분야 관련단체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 11개 회원국을 가진 AFoCO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 산림녹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베트남·태국에서의 메콩강 유역국가 산림복원 사업, 말레이시아·브루나이·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에서의 도서국가 훼손지 복원사업 등이 우선 추진과제다. 또 회원국의 산림 관련 정보를 한국 조림투자기업에 제공하고 산림 전문가와 학생의 해외교류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난해부터 사무국 개설 실무를 맡아 온 박종호 사무차장은 "AFoCO는 각 회원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지원효과를 얻는 산림분야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국제협력팀
송광현 주무관(042-481-8894)

산림청, 국내최초로 앱접근성·웹개방성 인증 KWAC "앱은 장애인 접근성 높고, 대표사이트는 포털서 검색 쉬워"



"산림청(청장 이돈구)의 대표포털사이트(www.forest.go.kr)와 스마트폰용 앱이 5일 한국웹접근성 인증위원회(KWAC)가 시행한 앱 접근성 및 웹 개방성 인증심사에서 국내최초로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스마트폰(안드로이드, 아이폰)용 앱 '산림청'을 점검한 KWAC는 이 앱이 장애인도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고 평가하고 접근성 인증마크를 수여했다. 또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받은 산림청대표포털사이트는 수록정보를 검색포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현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은 포털사이트의 정보를 검색로봇 접근과 색인처리 등을 거쳐 올바른 경로로 검색포털에 제공하고 있다. 김찬희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산림청대표포털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개방성 및 접근성을 준수해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산림정보를 정확하게 구축해 국민에게 올바르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이제희 주무관(042-481-4163)

남원에 최대규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들어서 2014년까지 400억 들여 백두대간마루금에 문화·역사·생태 체험공간 조성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전라북도, 남원시와 함께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는 남원시 운봉읍 일원에 2014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백두대간 생태체험 교육장을 만들기로 했다. 3만3000여㎡의 면적에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백두대간 산림생태교육장은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지리산 둘레길과 백두대간 마루금에 연결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남원 백두대간 산림생태교육장에는 백두대간 테마로드, 산악 모험원, 숲속 휴양원 등 체험휴양시설이 들어서고 야생 동·식물전시관을 포함하는 국내 최초의 4계절 테마파크형 생태문화전시관도 만들어진다. 생태문화전시관 예정지인 운봉 노치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가는 마을로 영호남의 주요 분수령(分水嶺)이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흐른 물은 진주 남강을 지나 낙동강에 닿고, 서쪽으로 흐른 물은 남원 요천을 지나 섬진강에 합류한다. 산림청은 생태교육장이 완공되면 지리산 둘레길과 아래봉 철쭉군락지와 연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산림청은 충북 괴산, 경북 상주, 강원 양양 등 3곳에서 백두대간 산림생태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2015년까지 남원을 비롯해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경남 거창과 전남 구례에도 생태교육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김위동 사무관(042-481-8814)

